

口中醫의 그림

이웃나라 日本에서는 718年 (江戸末期)의 養老律令이 정해져서 그 일환으로 四科의 醫博士가 있었다. 그 하나가 耳目口齒科이다.

現在까지 전해 내려오는 最古의 醫書「醫心方」(丹波康賴編 982年完成)에도 齒科疾患이 기재되어 있으며 江戸時代에는 官職에도 口中醫가 醫官으로 行세하였다.

民間에도 口腔疾患을 취급하는 口中醫가 있었으며 口中醫가 入齒를 만들 때는 齒醫라 불렀고 入齒(補綴)만을 만들었던 사람을 入齒師라 불렀다.



崔鍾煥 치과기공소

서울 · 종로구 송인동 1081
전 화 93 - 6671